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50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0월 5일 **금요일** (음 8월 26일) 제214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축제를 미리미리...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오늘 개막



2018 완주와일드푸드축제가 6일부터 7일까지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펼쳐진다. 메뚜기 체험장, 계란 곱질밥 만들기, 리틀외떡볶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민간의 준비를 갖춰 박성일 완주군수와 용봉초 학생들이 함께 정식 개막을 앞두고 축제를 미리 즐기고 있다.

## 태풍 '콩레이' 북상, 전북은 비상

전북도는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직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도 및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비상체제로 전환 하는 등 태풍 비상대응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4일 재난상황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부서 실국, 원장을 대상으로 긴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태풍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인명피해 우려지역, 재해위험지역 및 농축수산물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다음주 개최되는 전국체전 시설물 피해 예방 대책과 세계소리축제 등 도내 각지에서 개최 되는 10월 축제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전했다.

도, 시군 등과 협력체계 구축 비상체제로 전환키로

송 지사 "농축수산물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 다해야"

송하진 지사는 "가을걷이가 한창인 시기에 전북도에 직간접 영향을 줄 이번 태풍 크기는 중형급이지만, 강도는 매우강한 태풍으로 강한 비압과 함께 많은 비를 동반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수확작기에 놓인 농작물에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와 각 실국별로 조목 조목 대처계획 점검을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 지원대책과 산사태 위험지구 대비대책, 이재민구호 및 재해구호물품 지원대책, 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조 구급대책 등 태풍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들을 꼼꼼히 점검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대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비상단계별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해 기상정보와 태풍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위험지역별 안전담당자를 현장에 전진배치는 물론 저지대 차량이동 주차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시군과 협조하여 호우에 대비한 배수펌프 가동준비, 강풍에 대비한 선박 결속 대피 통제, 해안가 방조제 해안

도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 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중인 공사장 안전관리 및 수방대책 점검, 갯바위, 방파제 등 낚시객 관광객 사전 출입통제 등 위험지역 사전통제 실시는 물론,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 구조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가동 중에 있다.

또한, 도민들에게 태풍 내습기간동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풍 호우 대비 국민행동요령 숙지를 당부했다.

태풍내습 기간 중에는 강풍, 호우, 풍랑에 대비하여 되도록 하천 해안가 등 위험지역의 출입과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 등은 집밖으로 나가지 않고,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안으로 대피해야 한다. /김진성 기자

### 社告

## 제2회 전북 아리울 어버이 합창대회

일시: 2018년 10월 6일(토) 오후 2시  
장소: 전북도청 대공연장

깊어가는 가을, '제2회 전북 어버이 합창대회'를 6일 전북도청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 ▲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 ▲ 후원: 전북도, 전주시, 전주매일신문
- ▲ 방송: 가요TV, 시니어TV
- ▲ 문의: 사전북문화진흥원 (063-288-9700)

## “검·경 수사권 조정 법령 조문화 곧 완성”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관련 법령의 법 조문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곧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진행 상황을 묻는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6월 정부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는 사법경찰관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고, 검사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송치 전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의 내용이 다뤄졌

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관련 법 개정까지도 수반해야 된다”며 “관련 법 조문화 작업이 진행 중이고, 곧 완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조정 합의문에 충실한 안으로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와 공소제기를 완전히 분리할 의향은 있는가”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 “검찰 조직 전체 개편과 관련된 문제”라며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서 그런 문제까지 순대기에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김진성 기자

※ 토·일요일 신문 읽는다.

축! 전주매일 창간

http://council.jinan.go.kr

## 더 큰 열정으로 진안군민의 뜻을 모아 군민의 생각이 곧 의회의 생각이 되는 진안군의회가 되겠습니다.

항상 열린 의정으로 군민의 말에 귀 기울이고 군민이 원하는 올바른 의회로  
진안군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안군의회  
http://council.jinan.go.kr

제8대 진안군의회 | 군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바른의회!